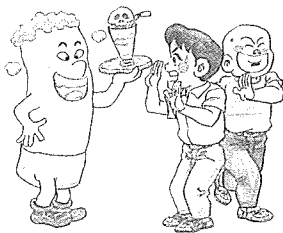


# 청소년의 흡연 실태



## 중 고등학생의 흡연을 증가

청소년의 흡연율은 지난 8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흡연율은 중 3에서 고1로 넘어가는 시기에 급격히 증가한다. 특히 여학생의 흡연율이 중학생인 경우 1991년 1.2%에서 1999년 3.1% 고등학생의 경우 1991년 2.4%에서 1999년 7.5%로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흡연시작 연령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고등학생들이 처음 흡연을 시작하는 시기는 대체로 중학교 2·3학년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60%가 중학교 2·3학년 때에 처음 흡연을 시작했다.

또한 흡연 시작 연령이 점차적으로 낮아지는데 중학교 3학년 때에 처음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비율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은

29.9%인데 비하여,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은 34.9%,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44.7%로 흡연 시작 연령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흡연 문제는 고등학교 때의 문제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흡연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

고 있으므로 중학교 때부터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 외국 청소년에 비하여 높은 흡연율

우리 나라 고3 남학생의 흡연율

### 우리나라 중학생의 흡연율 (%)

성별	연도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여자	1991	0.8	1.0	1.8	1.2
	1999	2.2	3.2	3.5	3.1
남자	1991	1.9	3.8	3.6	3.2
	1999	1.1	8.7	7.0	6.2

자료: 지선하(1999), 흡연의 현황과 그 역학적 특성

###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흡연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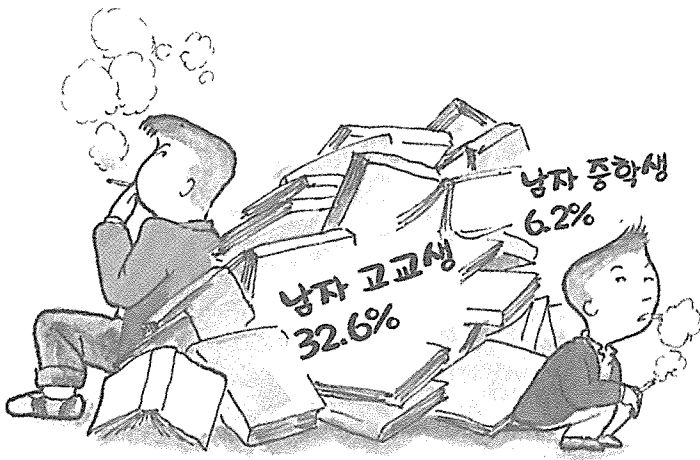
성별	연도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여자	1991	1.3	1.9	4.3	2.4
	1999	10.5	7.4	5.3	7.5
남자	1991	14.3	38.2	44.8	32.4
	1999	24.7	31.1	41.0	32.6

자료: 지선하(1999), 흡연의 현황과 그 역학적 특성

### 고등학교 흡연 학생들의 흡연 시작 연령 (%)

흡연시작연령	현재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초등학교	3.7	3.1	1.7	2.9
중1	6.9	3.3	2.3	4.0
중2	28.1	25.7	16.7	23.7
중3	44.7	34.9	29.9	36.3
고1	16.6	26.3	34.7	26.0
고2	-	6.7	12.7	6.5
고3	-	-	2.0	0.6
계	100.0(349)	100.0(490)	100.0(354)	100.0(1,193)

자료: 참된 의료 실천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전북지부, 1999



외국 청소년의 흡연율 비교 (고등학교 3학년 기준)

구분	여자	남자
한국(1999)	5.3	41.0
일본(1991)	5.2	26.2
미국(1997), 흑인계	17.4	28.2
영국(1994), 아일랜드계	16.5	20.5
러시아(1994)	4.8	19.4
이스라엘(1994)	8.8	9.3

은 41.0%로 같은 연령대의 외국 청소년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담배 한 개비는 11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일찍 피울수록 생명이 더 더 단축된다.**

17세에 담배를 시작해서 71세까지 사는 흡연자를 기초로 해서 얻은 연구 결과에의하면 담배 한 개비를 피울 때마다 11분의 수명이 단축되며, 담배 한 갑을 다 피우면 3시간 40분의 생명이 된다 (London Times, 1999. 12.31).

이러한 영국에서의 연구 결과를 우리 나라의 흡연에 대입해 보면

한국인 매일흡연자의 평균 흡연량, 즉 하루 17.5개비(국민건강영양조사, 1988)를 피울 경우 일주일에 22.4시간의 생명이 단축되어 흡연자는 일주일에 하루를 잃어 버리게 되며, 일년이면 48.8일이 단축되게 된다.

담배를 일찍 피울수록 생명이 더 단축되며, 살아 있는 동안도 비흡연자보다 건강하게 지내지 못하고 오랫동안 앓을 수 있으며 고통스러운 죽음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기는 세포, 조직 그리고 장기는 성숙하는 과정에 있고 이 시기에 담배를 피우게 되면 자연히 흡연 기간이 더 길어지고 흡연량도

더 많아지게 된다.

질병·자살 등을 포함한 모두 54종류의 사망 원인 가운데 흡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병이 25가지나 된다. 흡연은 암 발생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며 흡연과 관련된 암은 무려 17종이며, 이러한 암에 걸릴 확률은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14배나 높다.

흡연과 관련된 암 중 잘 알려진 것으로는 폐암, 후두암, 구강암, 기관지암 및 식도암 등이 있으며 간암, 방광암, 췌장암, 위암 및 자궁경부암 등도 흡연자에게 발생하는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연은 또한 심혈관계 질환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담배의 독성 물질로 인해 혈전증, 빈혈, 고혈압 및 동맥경화증의 증세를 일으킨다. 10대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사람은 성인이 돼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사람보다 폐 손상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의 경우 폐암 사망자의 90%가 흡연자였으며 15세 이후에 담배를 시작한 경우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9배인데 비해서 15세 이전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경우에는 2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흡연의 해악은 산소 부족증에 의한 뇌의 기능 저하로 기억력 감퇴, 사고 능력 저하, 운동 기능 저하 등이 생기며, 미용 상으로도 피부 변색과 탄력 감소 및 치아가 누렇게 변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치아의 색깔 변화는 담배를 끊어도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 